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차기 국무총리에 한성숙 지명	정치	
2	뉴욕증시 반도체주 급락...하루 만에 시총 2000조원 증발	경제	

(1)기사/뉴스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한 지명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취임하면 2006년 취임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정보기술(IT) 업계 출신 인사가 총리로 지명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청와대에서 총리 후보 지명을 발표했다. 그는 “IT 기업 대표와 중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책임자로 기대된다”며 인선 배경을 전했다.

강 실장은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라며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AI 대전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속도와 성과, 현장을 강조하며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 결과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러한 후보자의 혁신 성과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기회가 더해진다면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의를 표한 김민석 총리의 후임을 물색해왔다. 강 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물망에 올랐지만 한 지명자가 최종 낙점됐다. 1967년 경기 의정부에서 태어나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한 지명자는 IT 전문지 기자 출신으로 엠파스를 거쳐 2007년 네이버의 전신인 NHN에 입사했다. 2017년 여성 최초로 네이버 대표이사로 선임돼 네이버페이와 스마트스토어 등 서비스 성장을 주도했다. 미국 경제지 포천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50인’에 2017년부터 4년 연속 선정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 정책 기조를 기존 중소벤처기업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 대표 정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6만3000여명이 신청해 정부 공모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국회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한다.

**요약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총리 후보 지명을 발표하며, IT 기업 대표와 중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을 완수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책임자로 기대된다며 인선 배경을 전했다. 한 지명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취임하면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2)기사/뉴스요약

미국 뉴욕증시에서 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해온 반도체주가 5일(현지시간) 일제히 급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약 1조3000억달러(한화 약 2026조원)가 증발했다. 브로드컴의 AI칩 사업 성장세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확산한 데다 예상보다 강한 고용지표에 따른 금리 상승 우려까지 겹치면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AMD 등 주요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된 주요 반도체 종목 30개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이날 10.3%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이다. 반도체주 전반에 대한 매도세는 브로드컴이 이번 주 발표한 분기 실적에서 맞춤형 AI 칩 사업 수요가 시장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이후 본격화됐다. 이날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는 약 6% 하락하며 시가총액 3000억달러 이상이 줄어들었다. 마이크론은 13% 급락해 시가총액 약 1500억달러가 사라졌다. 최근 상승세를 주도했던 마벨 테크놀로지는 17%, AMD는 11% 각각 하락했다. 브로드컴 역시 8% 가까이 떨어지면서 이틀간 낙폭이 20%에 육박했다. 로이터는 이번 매도세가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초대형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고평가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커지는 가운데 나타났다고 짚었다. 스페이스X가 상장에 성공할 경우 기업가치는 1조7500억달러(약 2728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미국 고용지표가 5월 들어서도 예상 밖에 회복력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확산한 것도 투자심리를 급속도로 위축시켰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5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7만2000명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8만명 증가를 내다본 전문가 예상치(다우존스 집계 기준)를 큰 폭으로 웃돈 수치다. 트리플D트레이딩의 데니스 덕 트레이더는 “그동안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무작정 매수했지만, 그런 전략은 오늘 끝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급락을 업황 악화보다는 과열에 따른 조정 성격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이번 급락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로는 여전히 73% 상승한 상태다.

**요약 :** 미국 뉴욕증시를 주도해 온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락하며 금요일 하루 만에 시가총액 약 1조 3000억달러가 증발했다. 주요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0% 이상 하락하며 202년 3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하락 원인으로는 브로드컴이 분기 실적 발표에서 AI칩 수요가 시장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지적된다. 또한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 밖에 회복력 있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확산된 것도 투자심리를 위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백 래시	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 심리 및 행동을 이르는 말로, 사회 변화에 따라 기득권층의 영향력이 약해질 때 그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다.	시사상식사전
2	백 룸	노란색으로 꾸며진 일상적인 공간 사진으로부터 시작된 괴담으로, 호러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미지가 공유되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무한한 공간에 갇힌다'는 도시 전설로 발전한 개념	

##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기사: 또, 털렸다 / 송진식 / 사회

평온했던 주말,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날아왔다. 이번엔 CU편의점택배를 운영하는 BGF네트웍스다. 이틀 전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티빙(TVING)’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너무 잦은 일이라 별로 놀랍지는 않았다. 티빙 때는 유출된 정보가 이름·성별·생년월일 정도였다. 이에 더해 CU편의점택배에선 휴대전화번호·집주소·e메일 등이 더 털렸다. 어쩐지 못 보던 대리운전 스캠과 정체 모를 피싱메시지가 날아들더라니. 그런데 ‘심증’은 있어도 ‘물증’은 없다. 유출사고를 낸 업체들에 책임을 물을 생각도 물론 없다. 20년 넘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했다. 포기한 지 오래다.

그래도 매번 적응이 안 되는 건 놀랍도록 ‘무성의한’ 기업들의 태도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기업도 매뉴얼을 충실히 따르는 추세다. 문제는, 그게 전부라는 것이다. 사후약방문식의 매뉴얼이 나온 뒤 유출사고는 줄었는가. 피해가 더 회복됐는가. 그렇지 않다. 기업들이 매뉴얼을 충실히 따르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72시간 이내 유출사고 통지’는 최근 상당히 잘 지켜지는데, 이를 어겼을 경우 법정에서 과실로 입증되기가 비교적 쉬워서다.

기업들이 유출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나 e메일을 보면 형식이나 내용도 판박이처럼 똑같다. 매뉴얼을 따른 결과이기도 하고, 매뉴얼만 베낀 결과이기도 하다.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접수나 구제를 위한 신고센터의 전화번호를 안내하게끔 되어 있다. 피해접수라며 안내된 티빙 번호로 전화했더니 “피해접수는 전화로 안 된다. e메일로 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CU편의점택배 피해접수 번호로 전화해보니 “비밀번호를 변경해달라”는 말이 전부였다. 유출된 정보도 이름·전화번호 등까지는 알겠는데 CI·DI가 뭔지, ‘비밀번호(단방향 암호화)’는 무슨 의미인지 설명도 없고 안내도 없다. 이런 요식행위들을 보자면 사고대응 매뉴얼은 사고대응 ‘면죄부’로 불리는 게 더 합당해 보인다.

반복되는 유출사고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고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업들 태반은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정보를 지키고 보존할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기를 쓰고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정부에서 이를 뭐라 하면 처음엔 e메일 정보 정도만 수집했다가 서비스 통합이니 추가 혜택이니 하며 야금야금 추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이 적지 않다. 그게 돈이 되거나, 돈이 덜 들거나여서다. 깃털만큼 가벼운 처벌 문제도 하루이틀 나온 게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이 있는 나라도 아니어서 피해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비식별정보라도 쌓이고 쌓이면 식별정보가 될 수 있다. 최근 경찰에 검거된 한 해킹조직은 국내 공공기관 사이트 등 6곳을 해킹해 얻어낸 개인정보를 조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융자산을 빼돌렸다. 인공지능(AI)이 고도화되면서 AI를 활용한 해킹이 어디까지 진화할지도 알 수 없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도 어느 시점부터는 멈춰 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확인 수단으로 공공기관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다. 정부가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기를 바라지만, 최근 발생한 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내부 관계자의 인식 수준이 우려스러워 있는 그대로 통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참고로 이 사이트에서는 가입자별로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고가 나서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 정도 개인정보는 이미 다 유출됐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